

한라칼럼



김 관 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서울보다 더 움츠러들었던 삼월과 사월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이제 오월이다. 교정 가득한 벚나무마다 싹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다. 학생들 없이 교사들만이 텅 빈 교실을 지키며 고민하던 학교는 이제 비로소 교사와 학생들이 더 반가이 마주하며 수습하는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면서 다른 어느 곳보다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등교 개학은 5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과 학

다양한 교육환경의 시대를 생각하며

교 그리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혼란스럽고 학사 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학교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는 미래사회에 변화될 학교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교수·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성역으로 자리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익히며, 개성 있는 자아를 찾아가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전 세계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문명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위상과 역할도 복잡하지만 다양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성, 창의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이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낯설어 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에듀, 에듀 테크, 유튜브 학습지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환경도 유익하게 조성해나가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창으로 선생님들이 출석을 호명하면 99% 응답한다. 메신저 창을 이용해서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친구와 소통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던

학교도 변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비록 개학은 늦어도 온라인을 통해 활기찬 수업과 미진했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지도안을 새롭게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모습도 한층 더 진지해졌다.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대체된다고 해서 공정성 문제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

우리 사회가 경험한 최악의 사태는 또 찾아올 수 있다. 이번 경험의 의미 있는 결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측과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당면한 대입 문제도 코로나 대응처럼 사회의 협력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학습 지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학교에서 들리는 약자한 소리가 오늘따라 몹시도 그립다.

뉴스-in

“40년 후 광주는 새날의 상징으로 우뚝”

제주도, 진드기 물림 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제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84·서귀포시)씨는 평소 과수원 등에서 작업 활동을 했으며, 이날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확진 판정.

정인보 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야외작업과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 이태윤기자

“한도 5억원으로 조정기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7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눈길.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가 예상되는 도내 서비스업·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1차 지원자금 700억원이 지난날 말 99% 소진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

제주본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18일부터 5억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제주·광주교육 따뜻한 연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8일 “제주와 광주교육이 더욱 따뜻하게 연대해 항구적인 평화와 정의, 민주주의가 있는 한반도를 이루겠다”고 기원사.

이 교육감은 이날 “40년 전 광주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했다. 40년 후 광주는 새날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고 소개.

이 교육감은 특히 “코로나19 앞에서 연대·협력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40년 전 광주가 이미 보여줬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사설

4·3특별법 개정 무산, 정말 실망스럽다

정치권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주4·3단체들은 제주에서, 서울에서 각종 집회를 갖고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상복까지 입고 호소했으나 정치권은 끝까지 외면해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진상규명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겐 그리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4·3으로 인해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희생

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주요 골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2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다. 결국 장기간 표류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권에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보다도 정치권이 4·3특별법 처리에 끝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4·3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읍소하다시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않고서야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것 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돌변했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창립 18돌 JDC,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동북아의 중심 제주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창립 18돌을 맞았습니다. JDC는 그동안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해 왔습니다. 청·장년층을 위한 인재양성과 재취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소외계층 나눔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JDC는 창립 18주년을 맞은 현재 도민들로부터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에 더 휩싸여 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수용도지 반환소송 패소, 헬스케어타운내 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은 JDC 이미지 추락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어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는 도민사회에 “누구를 위한 대규모 개발이냐”로 부정 여론 형성에 결정적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DC는 이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주사회가 최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송악산개발사업, 제2공항건설 등과 관련된 환경보전과 개발의 가치 사이에서 심한 몸살을 앓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이나 관광객 유치도 ‘환경보전과 도민 삶의 질 제고’ 우선이라는 비전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JDC 미래전략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서 제기된 내용도 이와 상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시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연결, 출범 당시 반한소송 패소, 헬스케어타운내 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은 JDC 이미지 추락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어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는 도민사회에 “누구를 위한 대규모 개발이냐”로 부정 여론 형성에 결정적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DC는 더 늦기전에 제주만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 제주인을 위한, 제주의 기관으로 ‘새 틀’을 짜야합니다.

열린마당 ‘청렴’, 공명지조의 마음가짐



김 태 영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공명지조란 불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상상의 새인 공명조의 이야기를 빗대어 표현한 자사성어이다. 이 새는 한 몸메 머리가 두 개인 새이다. 한쪽 머리가 늘 좋은 열매만 혼자 쟁겨 먹는다. 그에 질투한 다른 한쪽 머리가 독이든 열매를 먹는다. 독 열매를 먹어 다른 한쪽 머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머리가 두 개이지만 한 몸인 그 새는 결국 죽어버린다. 보통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공명지조로 비유한다. 어쩌면 공명조의 이야기가 청렴하지 못한, 부정부패한 공무원과 국가의 결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공무원 한 명의 이기심과 욕심에 따

른 부패한 의식과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이는 곧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의 청렴한 자세와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은 때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국가와 공무원이 공명조의 한쪽의 머리라면 다른 한쪽의 머리는 공무원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구성원일 것이다. 청렴한 사회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개선과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국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며 차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힘겨운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되새기고 공무원으로서의 첫 출발선에 서있는 모든 신규 공무원을 공명조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부패와 거리두기를 생활화해야겠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정근(충청대학교 교수) 어머니
남평문씨 송순(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8일 08시 30분경에 별세하
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5월 19일(화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5월 20일(수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김용진(故)
아 들 김정근 머느리 현효순
대근 강애영
재철 오미선
딸 김정숙 사 위 길호인

※연락처 : 김정근 010-4646-8022
김대근 010-9877-8808
김재철 010-6558-3459

부 고

백경사(前 동부한농 제주본부장) 어머니
전주이씨 태수(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8일 09시 02분경에 별세하
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5월 20일(수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5월 21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도동 소재)장례식장
3분향실
-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백경사 머느리 이여숙
경진 권민성
경직 유순미
딸 백은자 사 위 신동언
손 자 백근영

※연락처 : 백경사 010-5480-4638
백경진 010-6220-5527
백경직 010-6305-2165

부 고

문상흠(前 신한은행지점장. 現 서강대
학교 행정실장) 아버지 남평문공 병구
(국가유공자, 향년 90세)께서 2020년 5월
18일 14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5월 19일(화요일)
- ▶ 발인일시: 2020년 5월 20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 장 지: 양지공원 → 충혼묘지

부 인 김정생
아 들 문상흠 머느리 강예경
성흠 임승미
재흠
딸 문미선 사 위 송병호
정선 김창률
우선 변정옥
희선 안흥남

※연락처 : 문상흠 010-8633-4198
문성흠 010-9250-0900
문재흠 010-3014-1401
문우선 010-9898-751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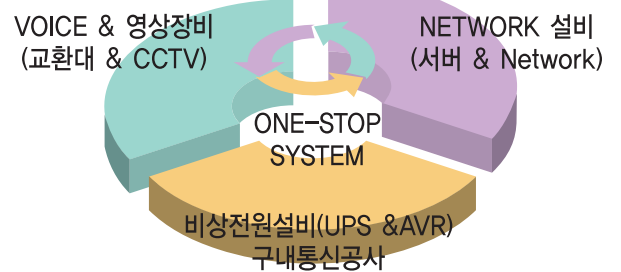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